

10월 1일 - 10월 31일

베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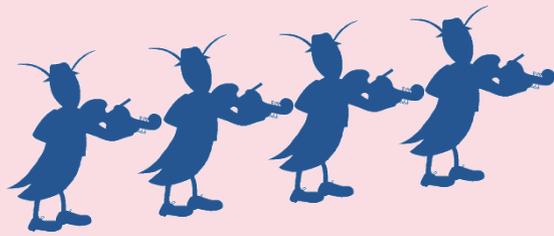
남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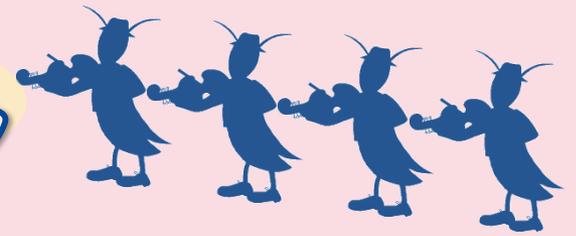
짱

이야

김근우 김바다 유태은 조준호



Contents



1부

팀원 소개



2부

10월 스케줄
활동 : 피드백과
소감



3부

에세이



4부

서로가 그리는
서로
준호의 부록
일상



1부

팀원 소개

팀원소개



1

김근우 —

- 現 Đức nhân (늑년)
- 現 Cùi bắp
- 現 징징이 (콩징징)
- 前 안동 컨트리사이드 보이



2

김바다 —

- 現 Bích Thủy (빗투이)
- 現 흥바다
- 現 유하은 화장실 메이트
- 現 우리 이거 해야 돼
- 現 10월 보고서 편집자
- 前 10월 리더 ☺

팀원소개



3

유하은 ———

- 現 Ái Tâm (아이땀)
- 現 아기 사랑 실천 대장
- 現 즐임말 메이커 (즐메)
- 現 팔 흔들기 능력자
- 現 하은맘 @---
- 現 덕선이



4

조준호 ———

- 現 Hoài An (화이안)
- 現 심통 대장
- 現 행복 버튼 소유자 (수동)
- 現 마니또 너무해 대장
- 前 그것은 허상... 대장

A narrow alleyway in a residential area. On the right, a white building with a corrugated metal roof has laundry hanging on lines. A green metal gate with a chain-link fence is in the foreground. Two children are playing in the alleyway. The sky is blue with some clouds.

2부

10월 스케줄

활동: 피드백과 소감

Tháng 10 2016

Chủ nhật	Thứ 2	Thứ 3	Thứ 4	Thứ 5	Thứ 6	Thứ 7
						1
2 김근우 아픈 날	3 UTE	4 스마일 레스토랑	5	6	7 양동화 간사님 깜짝 방문	8 Linh과 놀기
9	10 본격적인 활동 시작	11	12	13 한, 씩과 빈곤 이야기	14 DAY OFF	15 동혁 오빠 본 날
16 빈곤퇴치 서베이	17	18 김근우 가짜 생일	19 김병재 차장님 건우 혜선 방문	20 Linh과 마지막 수업	21 마니또	22
23	24	25 스마일레스토랑 @4군	26	27 D+50일 기념 과자 파티	28	29 한 · 동혁오빠와 행아웃
30	31					

주요스케줄

월 VTE

화 스마일 레스토랑

수 홍안 유치원

목 베트남어 수업 / 언어교환

금 레딘친 초등학교

주말 놀아용



UTE 한국어 센터





바다와 준호,
근우와 하은,
2명이 각각 한 반을
맡아 수업을 진행했다.



UTE에 가면 반가운 얼굴들이 많다.“네?” 선생님, “돼지 아니예요, 사람이예요.”라고 말해 우리를 웃게 만드는 헤오, 자꾸 ‘안’(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남, 등… 우리는 이들에게 과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



◆ 이것만은 꼭! ◆

-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베트남어 문장을 준비하자!
- 정확한 한국어 발음을 확인하자!
- 한국어로 많이 말하게 하자!
- 미리 수업 전에 확인할 것: 스피커, 프로젝터, 연결 케이블



◆ 피드백 ◆

- 수업 시간은 한 시간 반이 적당하다. 두 시간은 너무 길고 할 것이 없다.
- 수업에 대한 공지를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 한 반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다양한 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문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UTE에는 한국으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많다. 그래서 가장 우리를 필요로 하고, 또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기에 1주일 중 제일 신경을 많이 쓴다.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내어 학생들을 만나서 더 가르쳐 주기도 하고, 유학 면접을 도와주기도 했고, 또한 나 역시도 그들로부터 베트남 문화를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수업이 끝나면 같이 전통음식을 먹으러 가기도 하고 각지에서 온 학생들로부터 지역별 특징도 들을 수 있었다.

한 수업에서 만난 언니에게 ‘바꾸다’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저는 제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라고 말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단지 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진지함을 가지고 열정을 쏟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새삼 깨달았던 순간이었다. 또 어떤 이에게는 한국과 한국어가 자신의 인생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일이기도 했다. 때로는 그들이 바라보는 한국과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한국은 킁킁 놀려먹을 것들이 정말 많은 나라이고, 갑갑하고 떠나고 싶은 나라인데, 누군가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기도 했고, K팝과 K드라마의 세계이기도 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10월이었다.





우리가 UTE에 가는 목적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 원어민 선생님으로서 발음 교정과 동기부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잘하고 싶은 마음에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었다. 하지만 UTE한국어 선생님이신 Tâm선생님께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한국인을 만날 기회가 적은 학생들에게 말하고 들을 기회를 준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수업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그렇지만 경험상 준비가 미흡하면 자신감도 없어지고 수업도 잘 안 풀리니까, 부담은 내려놓되 자신감 있을 정도로 준비해야겠다. UTE에서 우리는 늘 존중 받고 환영 받는 느낌이라서 참 감사하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우리를 좋아해줘서 참 고맙다. 그런데, UTE에서 나랑 친한 친구들 중 몇 명이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는 축하하는 마음보다는 걱정이 앞섰다. 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내가 한국으로 곧 유학을 가게 될 친구들은 베트남사람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든다. 이것조차 나의 편견이 아닐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일까? 이따가 에세이에도 쓰겠지만 이것은 갯벌에 있는 바위를 걷어차면 걷어찰수록 갯지렁이가 튀어나오듯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 생각들이 튀어나온다. 이것은 분명히 직접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냥 막연히 뉴스를 보면서 오 한국 k-pop을 좋아하네~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것이다. 나는 여기서 고작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만 그것도 일주일에 고작 한번 할당 받았으나 내가 여기서 하는 대부분의 그런 쪽의 생각들은 주로 UTE로부터 나온다.



스마일 레스토랑





10월 넷째 주까지 다니던 1군의
스마일 레스토랑과 봉사자들.
9월을 같이 했던 존 아저씨는
미국으로 돌아가셨다.
매주마다 역할을 바꾸어
진행하고 있다.



10월 마지막 화요일부터 4군에 위치한
스마일레스토랑을 방문했다.
호치민에 위치한 7개의
스마일레스토랑을
찾아가 다양한 사람을 경험하고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정착하려고 한다.

◆ 이것만은 꼭! ◆

먼저 인사하며 다가가고,
즐겁게 일하기!
자주 웃기!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한번쯤 더 웃으니까!



호치민은 군마다 느낌이 정말 다르다. 이번 달에 다양한 군에 있는 스마일 레스토랑을 가면서 그 곳의 분위기들도 저마다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활기가 넘치는 곳, 깔끔한 곳, 시설이 노후된 곳, 봉사자가 부족한 곳 등 다양한 모습들을 보았고 다양한 봉사자들도 많이 만났다. 하지만 매번 옮기면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봉사자들과 관계를 맺기가 힘들다. 또 새로운 곳이기에 익숙하지 않아 처음에 일을 분담하는 것에서부터 시간이 걸린다. 스마일 레스토랑의 저마다 다른 모습들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고 우릴 그토록 환영하는 다른 봉사자들과도 한 번 만나면 끝이라는 게 너무 아쉽다. 한동안 있었던 1군 스마일 레스토랑 봉사자들과도 이제 막 친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껏 내가 맡은 일들은 손님을 유심히 지켜볼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러다가 밥을 리필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밥을 그렇게 열심히 먹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 본 것 같았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또 먹었다. 2000동에 배고픔을 달래야 하는 그들의 삶과 나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온종일 들어오고 나가는 손님의 수만큼 다양한 삶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나는 그것이 궁금해졌다.





스마일 레스토랑은 총 7개가 있는데, 그 중 1군에 있는 스마일 레스토랑을 갔었다. 그때 나는 음식이 놓인 식판을 드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눈을 맞추며 “Xin chào(안녕하세요)”, “Chúc ngon miệng(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니까, 무표정으로 오셨던 손님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미소를 지어주셨다. 나의 작은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미소 지을 수 있어서 나도 행복했다.

매번 1군에 있는 스마일 레스토랑만 가다가 Jonh 할아버지의 추천으로 다른 스마일 레스토랑에 가게 되었다. 다양한 곳에 가보니 서로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1-2번 단기적으로 가다 보니 일손을 돕기보다 오히려 갑자기 등장해서 혼란을 주는, 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사람들에게 나는 상황에 따라 환영 받기도 하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사랑 받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사랑 받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다.

내가 하는 일이 여러 중요한 일들 중에서 고작 밥 먹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휴지꼬가리를 나눠주는 일이 더라도 낙심하지 말자! 과연 휴지를 나눠주는 사람이 밥을 퍼주는 사람보다 못하는 것일 것! 이것은 마치 마린 한 부대가 저글링 한 부대를 잡아먹을 때 0킬인 마린이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4군 스마일레스토랑에 붙어있던 마더 테레사 선생님의 말씀 하나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We can do only small things with great love” 카





홍안 유치원





베짱이 팀이 좋아하는 활동 중 하나인 홍안 유치원!

하은은 1세 반,
 준호는 2세 반,
 바다는 4세 반,
 근우는 5세 반을 맡아 수업을 도와주고, 밥을 먹여주며 같이 논다!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격주로 한 주는 아이들과 놀고,
다음 주는 벽화를 그린다.
또는 홍안 유치원에 있는 식물들을 가꾸는 일을 하기도 한다.



◆ 고민들 ◆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많이 엄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아이들을
찍어주어야 할까?
사진기를 아이들이 만지게 해도 될까?
우리가 선생님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

◆ 장난꾸러기 애기들을 다루는 방법 ◆

1. 우리는 주교사가 아닌데다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이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2. 때리지마, 당기지마- 등의
문장을 베트남어로 외우자!
3.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경우
아이를 타이르고, 선생님께 보낸다.
4. 사랑으로 감싸준다



◆ 쓸모 있는 봉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 ◆

동요, 게임, 머리 묶는 방법 알아가기

1세 반: 머리를 묶자. 아이들이 머리카락을 먹는다..!

5세 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상황을 보면서
알아서 찾아야 한다!

아이들의 이름을 외우는 노력을 해보자



◆ 피드백 ◆

한 반에 고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마음을
열어주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4시에 출발하는 것이 가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하 은 이 의 아 기 사 랑

아이가 있는 곳에는 하은이가 있다! 홍안 유치원에서 하은이의 아기 사랑을 들어보았다.



꼬까와의 첫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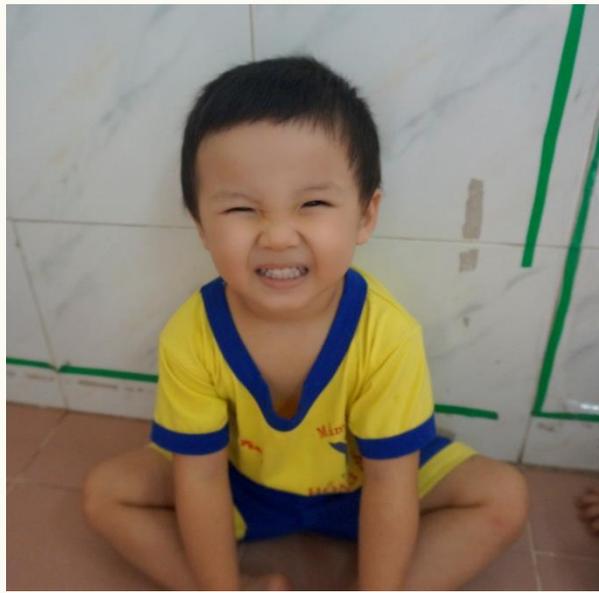


꼬까와의 두 번째 만남



꼬까와의 세 번째 만남

꼬까야! CÔ는 너를 처음 만난 날을 잊지 못한단다.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나를 보고, 무서워서 그런지 내가 싫어서 그런지, 네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나도 울고 싶었던단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내게 조금씩 마음을 내주는 너의 모습을 보며,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낯설어서 그랬구나”라고 너를 이해하게 되었고, 너를 통해 우는 아기 공포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단다. 너에겐 고마운 게 참 많단다. 달려와서 꼭 안길 때, 반짝이는 눈으로 내 눈을 쳐다볼 때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함을 느낀단다. 아직도 낮잠 자다 깨면, 나를 보고 우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할거란다.



이름은 '홍'이지만 무표정

홍이 처음으로 웃어준 날

그래, 넌 무표정이 매력이야

나에게 끝까지 마음을 안줄 것 같았던 너. 다른 아이들이 다 내게로 달려와도 꼳꼳하게 자리를 지키던 너. 나는 네가 너무 좋은데,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나에게 관심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네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CÔ도 서툴러서 잘 몰랐단다. 근데 고맙게도 네가 너를 좋아하는 내 마음을 알았는지, 어느 샌가 내게 다가와 살을 부딪기는 너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단다. 가끔은 밝은 웃음을 보이기도 하고 요즘은 달려와서 안기기도 하는 너의 모습을 보며, CÔ는 참 행복하단다. 그리고 그런 너를 보며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사진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활동 중에 가장 기대되는 날이다. 때리고 꼬집고 침까지 뱉기도 하는 아이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흥안 유치원 일정이 끝나고 집에 오면 thầy ơi(선생님!) 하고 부르는 아이들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띠인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과 관용을 잃지 않는 ㄷr...





홍안에서의 밤은 내게 너무나 설렌다. 자고 일어나면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잠이 많은 내가 새벽6시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 나는 정말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로부터 힘을 얻는 것 같다. 홍안유치원에서의 활동은 교실에 들어가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거나, 유치원의 잡다한 일을 하는 것인데, 나는 코디와 팀원들의 배려로 주로 교실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 나는 만1세 반에 고정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곳에서 나의 역할은 아이들 밥 먹이기, 옷 입혀주기, 머리 묶어주기, 함께 놀기 등이다. 나는 내가 선생님의 일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에게도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봉사하지만, 가끔은 선생님께서 나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나 때문에 선생님께 더 혼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그래도 나는 더 나은 보조 교사가 되기 위해 나는 '아기 머리 묶는 법'을 유튜브에서 보고 열심히 배우고 있고, 아이들이 주물러주니까 좋아해서 '베이비 마사지'도 배워서 한국에 가면 자격증을 따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 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열악한 환경이나 선생님의 체벌방식을 보며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다. 먼저, 아이들이 가지고 놀 교구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야외 활동이 전혀 없다. 그렇다고 주교사가 이끄는 활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먹고 잘 뿐 아니라 원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는 환경이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그리고 가장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선생님의 체벌방식인데, 그 방법이 너무 거칠어서 '아동학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아동학과 학생으로서 너무나 혼란스럽다.





홍안유치원은 분명 좋다. 왜냐하면 낮잠도 잘 수 있고, 짜어이가 밀크티도 사주시기 때문이다. 전날 저녁에는 느긋하게 할 일도 없이 온종일 뒹굴 거릴 수 있다. 하지만 첫 1~2주에는 난감함의 연속이었다. 처음 들어간 반에서는 대규모 똥침 공격을 당했고, 옷은 아이들이 잡아당겨서 늘어났다. 때리는 아이들을 피해서 원장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다음 주에는 그 반을 피해서 조금 큰 아이들이 있는 반으로 들어갔다. 등단 꼬!(선생님을 때리지 마세요)를 열심히 외치며 놀고(=애쓰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갔는데 별로 할 것이 없었당..(쓸쓸)

나는 내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알아서 내가 할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싶었다. 그래서 꾸준히 5세 반에 들어가서 때로는 애기들과 놀고, 청소도 하고 선생님 따라서 춤도 춘다. 이제는 홍안이 익숙하고, 정겹게 느껴진다. 먼저 나를 알아봐주고 꼬!(선생님!)이라고 외치는 아이가 참 예쁘다. 다 먹은 빈 그릇을 나에게 자랑하면서 칭찬을 바라는 아이가 예쁘다. 콩 히유(이해 안돼요)라고 말해도 계속 쫓알쫓알 물어 보기를 멈추지 않는 아이가 예쁘다. 어떤 날은 눈을 감으면 사랑스러운 아기들로 가득 찬다. 그러면 아기사진을 보다가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잠에 든다. 홍안은 그런 곳이다. 히히



베트남어
수업



9월의 정기적인 베트남 수업이 끝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베트남어 실력은 미숙하고,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더 생겨서 매주 목요일 아침마다 베트남어 수업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10월 마지막 주는 유이가, 그외의 주에는 른이 선생님께서 수고해주었다!
이제 른은 바쁜 일로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게 되었다. (농물)

◆ 피드백 ◆

9월의 정기적인 수업이 끝난 이후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활동에 필요한 문장들을 질문해서 배웠지만,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1. 책을 선정해서 9주 완성 베트남어! 숙제도 한다! 연습도 한다!
2. 안한다. ☺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에 달았다.



15기가 첫 한 달 때 배우는 게 거의 끝까지 간다고 했을 때, '나는 더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활동이 시작하고 나서는 베트남어 공부를 거의 안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베트남어에 대해 특히, 활동지에서 필요한 말들에 대해 이미 많이 배웠는데, 적어두기만 하고 외우지 않은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나는 원래 누가 날 가르치는걸 싫어한다. 혼자 공부하는 것에 비해 무조건 효율이 떨어지고 뭔가 답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바로 쌤판 모르는 것을 배울 때다. 그때의 효율은 혼자 공부할 때의 효율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혼자 공부해도 괜찮은 것 같다. 유튜브나 책을 보면서 공부하다 질문을 간사님한테 하는 식으로..? 암튼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그동안 가르쳐준 대학생친구들에게 고맙다!



언어 교환



바다는 Phuong 과, 근우는 Thanh Nhi와, 하은은 My와 각각 언어 교환 파트너로 서로에게 베트남어와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
바다는 한국어 학원을 다니는 Phuong 의 한국어 숙제와 각종 질문 거리를 담당하고 있고, 근우는 한국어를 두 달 배웠던 Thanh Nhi 에게 문법 수업을 한다.
하은은 한국어를 처음 배우는 My에게 자음,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는 중이다.
준호는 파트너가 없어 직접 파트너를 찾는 여정을 떠났다...



◆ 피드백 ◆

진정한 언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시간 중 80%는 한국어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파트너들이 한국어 수업을 준비해오지 않고,
우리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리둥절하다.

한 공간에서 각자의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
카페에 가서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파트너가 없거나 오지 않는다.



언어교환은 내가 하고 있는 활동 중에서 가장 어리둥절 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Phuong이 다니는 한국어학원의 숙제와 거기서 생기는

질문거리들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업을 직접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질문과 답이 오가고 있다. 나도 언어교환을 통해서 베트남어를 띄엄띄엄 배우고는 있지만 사실 나에게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언어교환 시간 때마다 Phuong에게 혹시 이 수업에서 어떤 걸 배우고 싶은지 물어보지만 그때마다 한국어학원 숙제인 토픽 시험지를 꺼낼 뿐이다. 바쁜 일상을 살고 있는 Phuong에게 베트남어 수업을 준비해오라고 요구해야 하는 걸까? Phuong과 즐겁게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 걸까?

처음에는 한국어 수업이었다. 하지만 학생 수가 3명이라 1:1 언어교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일방적인 수업이 아니라 파트너와 함께 서로 언어를 배울 수 있어 좋다. 특히 내가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한 수업을 준비해 가면 그것에 대한 베트남어를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된다.





첫 만남이 있는 후로, 2주 동안이나 연락도 없이 내 짝꿍 My가 안와서 실망했었는데, 3주째 되는 날에 그간 맹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었다며 My가 와서 다행히 언어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My는 한국어를 아예 처음 배우는 것이라서, 한국에서 가져온 교재들을 가지고 자음과 모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치고 있다. 물론, 원래해야 했었던 Y Korean class보다 부담이 덜해서 좋지만, My를 2시간 내내 가르치다 보면 알 수 없는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는 My도 나한테 배우고, 나도 My한테 배울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다.

왜 나는 짝이 없냐. 인생은 항상 홀수지.



레딘친 초등학교





제일 걱정을 많이 했던 활동 중 하나였지만
생각보다 잘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우리를 많이 좋아해주어서 다행이었다.
우리는 아이들과 '호키포키' 동요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처음엔 수업을 하다가 다음 두 주는 벽화를 그렸다. 탄과 쟁이 찾아와서 더 즐거웠다. 우리는 새로운 레딘친 초등학교 도서관 앞 벽 벽화를 완성해나가는 중이다. ☺



◆ 피드백 ◆

스케줄에 대해서 미리 공지해주었으면 좋겠다
격주로 벽화와 수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 준비해야 할 것 ◆

레딘친은 교구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수업교구나 미술재료는 미리 준비해가야 한다.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 쓰자.

베트남어 공부를 열심히 하자
레딘친에서 사용할 어휘/표현들을 외워가자
스피커와 컴퓨터의 배터리 신경 쓰고 충전기를 챙기자
메인 교사를 주목하자 항상!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자
아이들을 집중시키는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후기가 안 좋았던 활동이라서 걱정이 많았는데, 기대를 안 하고 가서 그런지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레딘친에서의 첫 단추를 잘 끼운 것 같아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된다. 레딘친에 간 첫날, 첫 수업에서 나는 내가 연예인이 된 줄 알았다. 큰 환호로 우리를 맞아주고, 종이를 가져와 이름을 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다소 어수선하기는 했지만, 초등학생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수업 준비가 미흡해서 아쉬웠지만, 레딘친 초등학교에 우리가 가는 목적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수업을 했던 아이들이 나에게 편지를 써준 것을 받고, 나는 레딘친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먼저 나에게 마음을 열어준 아이들에게 고맙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쉬는 시간에 아이들과 뛰어 놀기도 하고, 업히고 끌어안는 아이들 덕에 레딘친 초등학교에 가면 땀으로 젖는다. 선생님들도 좋고 아이들과 노는 것도 재밌고 벽화 그리는 것도 좋고 다 좋다. 낮잠 시간에 모기가 너무 많은 것만 빼면...



흠. 지금까지 레딘친에서의 느낌을 표현하자면 항상 토요일에 도리토스를 먹으며 무한도전을 보던 사람이 갑자기 일요일에 오감자를 먹으며 개그콘서트를 보는 느낌이다. 음? 그렇지! 바로 당신이 지금 드는 느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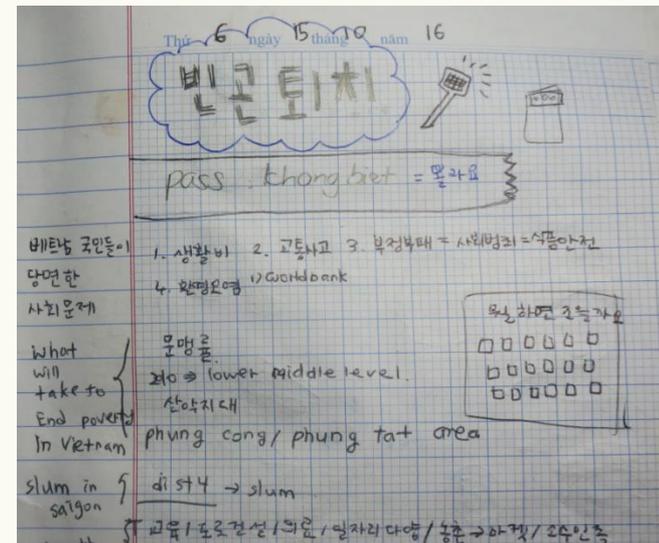
레딘친 초등학교에 간 첫날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다. 호키포키를 하면서 춤을 추고, cheer up에 춤을 추면서도 흥이 났다. 레딘친에서의 하루가 거의 지나가고 있을 때, 어떤 여자애가 웃으면서(분명 고의다!) 가슴을 만졌다. 정색하고 곧바로 짧은 베트남어로 아이를 혼냈긴 했지만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이다. 그래서 요즘 나는 벽화를 열심히 그린다...



빈곤퇴치 캠페인



빈곤퇴치 캠페인을 어떤 주제로,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우리가 성급히 편협한 시각으로 베트남의 빈곤을 규정해버리는 것은 아닐지 걱정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한과 씩에게 END POVERTY 캠페인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과 씩은 1.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 공부를 심도 있게 해볼 것, 그리고 2. 베트남의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해 설문지를 만들고 END POVERTY 캠페인을 소개하는 PPT를 번역하였다..



베트남의 빈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관심있는 빈곤주제에 대해 20대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은은 교육문제, 바다는 소수자 차별, 근우는 지역문제와 교통문제, 준호는 위생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팀원의 관심사항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UTE 수업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문을 진행하였다.

1. Bạn bao nhiêu tuổi?

Ⓐ 1~9 tuổi Ⓑ 10~19 tuổi Ⓒ 20~29 tuổi Ⓓ 30~39 tuổi Ⓔ Khác ()

2. Giới tính của bạn?

Ⓐ Nữ Ⓑ Nam Ⓒ Khác ()

3. Bạn nghĩ vấn đề nào là vấn đề nghiêm trọng nhất ở Việt Nam?

- Ⓐ Vấn đề về giáo dục (Thiếu giáo dục, chất lượng giáo dục...)
- Ⓑ Vấn đề về khu vực (khoảng cách giữa giàu và nghèo...)
- Ⓒ Phân biệt đối xử (nam & nữ, phân biệt dân tộc)
- Ⓓ Vấn đề về an toàn thực phẩm (côn trùng, vệ sinh của các nhà hàng)
- Ⓔ Vấn đề về giao thông (an toàn giao thông, ùn tắc giao thông...)
- Ⓕ Cái khác ()

4. Nếu bạn chọn 1 vấn đề cần được khắc phục ở Việt Nam, bạn sẽ chọn vấn đề nào. Làm ơn viết rõ.

5. Viết nguyên nhân và cách giải quyết mà bạn nghĩ phù hợp nhất.

- Cảm ơn -



설문을 진행하기 전에 준비한 PPT로 폭넓은 개념인 빈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문 결과, 다섯 개의 항목 중에서 20대 베트남 청년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빈곤은 첫째로는 위생문제, 둘째는 교육문제, 셋째는 교통문제였다.
우리는 이러한 설문을 바탕으로 11월에 활동을 계획 중이다! 😊



뜻밖의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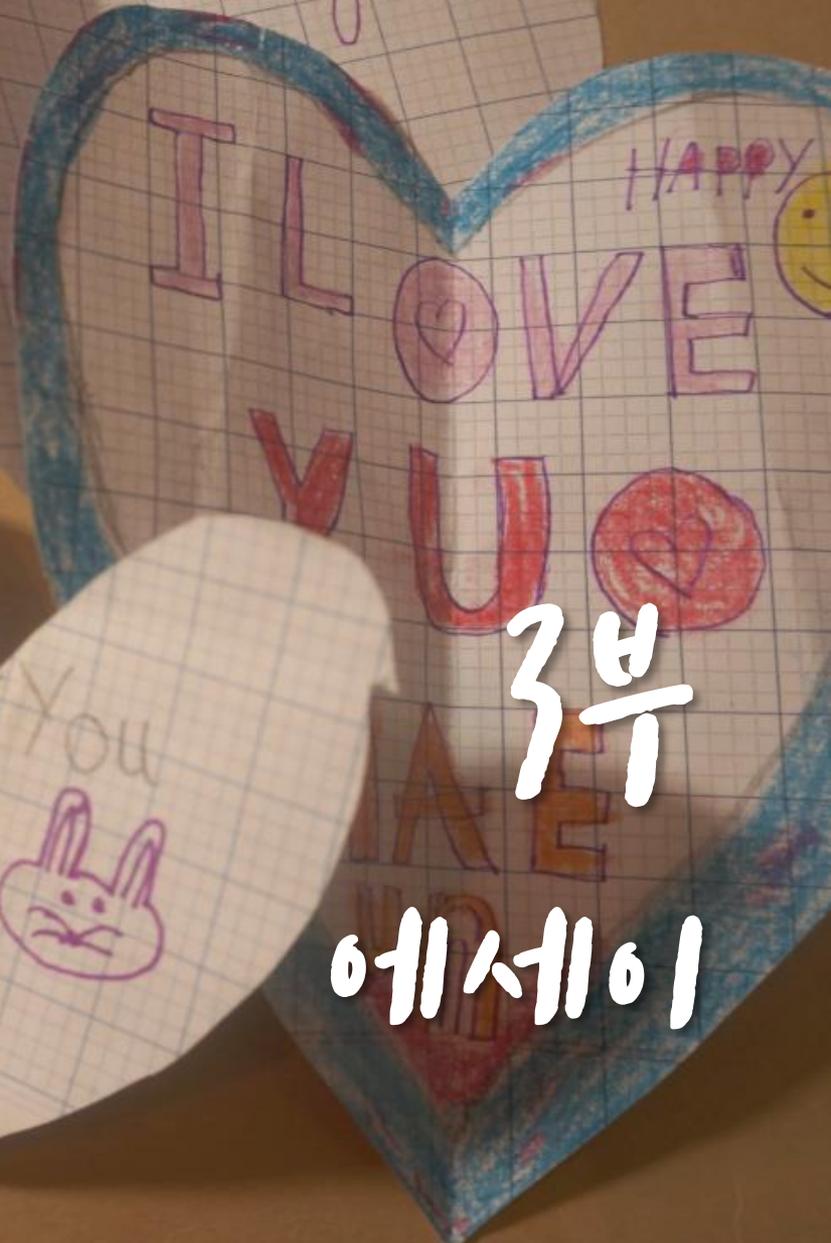


KB 국민은행 사회협력부 김병재 차장님과
스타비로 활동했던 김혜선, 박건우 대학생
봉사자가 홍안 유치원에 방문했다!
다같이 벽화도 그리고, 맛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녁도 먹는 등 즐거운 교류를 진행했다. ☺





I LOVE YOU



3부

에세이



10월의 아이뎁

#시간은 참 빨라

9월 에세이 쓰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0월 에세이를 쓰다니 시간 참 빠르다. 10월에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일주일 이 너무 빨리 간다. 월요일에 UTE 갔다가 화요일에 스마일 레스토랑 갔다가 짐 챙겨서 홍안 가서 하룻밤 자고 아이들과 정신 없이 놀다 보면 어느덧 수요일! 그리고 아침에 베트남어를 배우고 오후에 언어교환을 하다 보면 어느새 목요일도 끝나고, 금요일 레딘친에 다녀오면 주말이다. 어떻게 하면 붙잡을 수 없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후회가 덜 하게 보낼 수 있을까?

#나는 요즘

10월의 마지막 날 아침,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짜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분 좋고, 기대된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자고 싶어서 잠을 자고, 할 일이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내가 미래에 직장을 갖게 된다면, '출근할 때 기분이 좋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구나. 문득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22살에 휴학하고 베트남에 오게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 그래서 나는 요즘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트럭에 침대가 흔들리고, 우리 집을 부술 듯한 천둥이 칠 때면, 내가 발 딛고, 살고 있는 이곳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기에 이 세상은 완전하게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나도 날 모르겠다

인간관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할 때면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온 건가?”하는 억울함이 들 때가 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온 거 맞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부딪혀보려고 내가 라온아띠를 지원했었다. 그러니까 남은 석 달 한국 가서 “더 잘해줄걸” 후회하지 않도록, 더 많이 사랑해야겠다.

#마음에 담자

매일매일 일기를 쓰고, 사진을 찍고, 새로 블로그도 시작하게 되면서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기록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록과 활동 사이의 목적 전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록이 아닌 활동에 집중해야겠다.



#활동의 목적

아무래도 나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것 같다. 대충하는 것 없이, 모든 활동을 잘 해 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다 보니 활동을 대충 하는 것 같은 팀원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대충’한다는 것은 오로지 내 기준이고, 그게 그 팀원에게는 ‘최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내 생각만 맞다고 믿고, 상대를 나에게 맞추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작 나도 모든 것을 잘할 수 없으면서 억지를 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하는 활동의 목적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겁게 하는 것임을 잊지 않고, 잘해야겠다는 욕심, 어쩌면 자만을 버리고 ‘나 혼자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더라도 함께, 즐겁게 가는 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겠다. 내가 지금 봉사하는 게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왕 하는 거 편하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겠다.

#돈이 문제야

UTE에서 만난 호아 언니가 알바 하는 카페에 간 적이 있다. 그 날 나는 호아 언니 시급이 12,000동(600원)이라는 것을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시킨 음료가 25,000동(1,250원)이었는데 말이다.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물어봤다. 다시 물어봐도 12,000동이 맞았다. 한 간사님께도 물어보니 보통 그렇다고 했다. 너무 충격이 있었다. 내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한국과 똑같이 일하는데, 시급이 고작 600원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 물가가 한국보다 싸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해 봐도 너무 적은 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의 소비생활 때문이다. 나는 나름 엄청 아껴 쓰고 있다고, 거의 보통의 현지인들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해졌다. 또한 30,000동(1,500원)인 식비가 너무 적다고 느껴서 한 간사님에게 식비 인상에 대해 제안했었는데, 그것에 대해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이후로 'to serve not to be served'라는 YMCA의 슬로건에 걸맞게 일주일에 40,000동 정도 하는 빨래방에 안 가고, 스스로 빨래를 하게 되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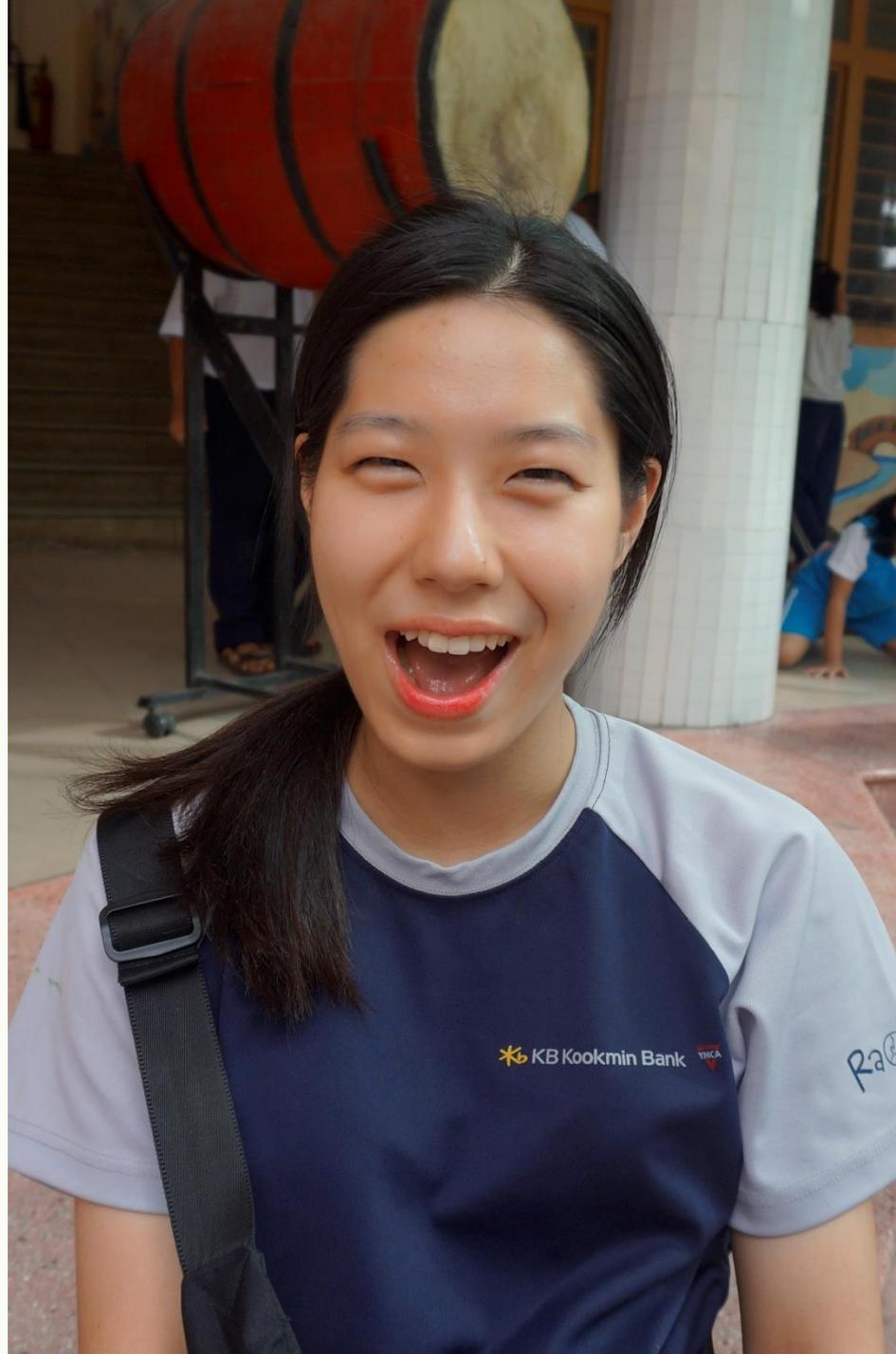
한 달쯤 베트남에서 지내고 나니 베트남 생활에도 차츰 적응되었고, 적응이 되고 나니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방에서 와이파이기가 잘 안되지?’, ‘왜 세탁기가 없지?’ 등 불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만 갔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내가 감사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있으면서도, 불평 거리만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보면 기대하지도 않던 침대가 내 방에 있고, 에어컨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곳에 와서 다른 것과는 바꿀 수도, 비교할 수도 없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따지고 불평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나의 가치관을 흔드는 문제가 아니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자는 생각이 들었다.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사람은 긍정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부정을 선택한다. 적어도 나는 내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끝날 때쯤엔 알 수 있을까

“베트남에 왜 왔어?” 베트남에 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대답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봉사활동’을 하러 왔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나 진짜 베트남에 왜 왔지?

#11월에 계속

에세이를 쓸 때면 어떻게 쓰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이내 현재의 내 생각을 주로 적게 되는 것 같다. 항상 잘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 생각들이 잘 정리되지 않고, 아무리 잘 써도 글로는 다 표현 못 할 것 같다. 내가 10월에 즐겨 듣던 노래인 ‘Seasons of love’에 이런 가사가 있다. ‘어떻게 설명해요 살아간다는 것을!’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는 아니, 우리는 잘사는 것도, 못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다.



10월의 빛투이

요즘은 정말 초등학교 방학생활 같다. 잠을 자고, 일어나서 맛있는 것들을 즐겁게 먹는다. 활동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 인해 웃거나 때론 씩씩거린다. 집에 와서는 침대에서 뒹굴거리거나 산책을 나가 밀크티를 마신다. 완벽하진 않지만 이대로도 충분한 느낌이 든다. 현재를 빼앗기지 않고도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지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 소중한함을 느낀다. 그래서 동시에 고민도 생겼는데, 5개월이 지나고 나서 나는 혹시 어떤 것들을 후회하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후부터였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주로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후회하게 될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사랑의 정도가 너무나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작았고, 어쩌면 자기중심적이기도 했다.



어느 날은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글을 읽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Learning to love you more'이었다. 그 전에 나는 맞춰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과 잘 지내려 노력하는 것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것이 완전히 의미 없지 않음을 생각하고 있다.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화두는 어떤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당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10월의 농년

9월 보고서에서 염려한 것이 10월에 일어났다. 시간이 정말 너무 빠르게 지나갔다. 많은 것들이 익숙해져 갔지만 또 새로운 것들도 정말 많이 보고 먹고 만났다.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익숙해졌구나 싶다가도 길거리에 나가면 새로운 것들 투성이다. 아직까지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많고 가 보지 않은 곳도 너무 많고, 호치민을 벗어나보지도 못했다. 이곳을 베트남의 전부라고 생각해버릴까 가장 경계하고는 있지만 이곳에만 살다 보니 어렵기만 하다.

9월 보고서를 쓴 후 돌이켜본 나의 베트남 생활은 만족스럽지 않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과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냈다. 이곳에서 만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휴대폰 왜 없냐고 묻는다. 그때마다 베트남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지만 그 시간에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컴퓨터로 한국과 소통하고 낮잠만 잤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기록해보았다.



[한국사람? 나는?]

드라마, K-POP, K-FOOD,,,,,, 한류, 한류 말로만 들었지 눈으로 본 그 영향은 대단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대해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어딜 가든 호의적인 시선이 따라온다. '나' 라서가 아니라 '한국인' 이라서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그런 관심이 싫지가 않다. 그렇게 그들의 환상과 나의 인정, 사랑, 관심 받고 싶은 욕구가 만나 나를 더욱 한국 사람답게 포장해버린다. 친절해야해, 매너 있어야해, 배려해야해,,, 나를 만나러 온 이곳에서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 있는 것 보다 더욱 한국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라온아띠 지원서에서 가장 어려웠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작성했던 질문은 다른 질문들이 아니라 '특기'였다. 나는 뚜렷한 색채가 없는 사람, 이렇다 말할 딱히 잘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을까?

'텅 빈 그릇같이 느껴왔어. 뭔가를 넣을 용기로써는 어느 정도 꼴을 갖췄을 지 몰라도 그 안에는 내용이라(내 것이라) 할 만한 것들이 없거든.' -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이 끊기는 것이 싫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싫은 소리 안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한국 사람' 다워지려고 노력하고,,, 나다운 그릇이 되기 위해 나를 더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5개월이다.



[우리 벵짱이]

10월 한 달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지나갔다. 활동에 대해 크게 어려움을 느꼈던 적도 없었고, 관계에서 심하게 어긋난 적도 없었고 말다툼 한번 없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서로에게 실수하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번 달은 익숙한 서로가 익숙하지 않은 추억을 나누기 위해 작은 이벤트들도 가졌다. 30일이 됐을 때 방에서 치맥을 하며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누었고 50일이 됐을 때는 대형마트에 가서 장보고 그걸로 파티를 열기도 했다. 그리고 마니또까지. 사실 마니또도 그렇고 파티 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에 관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귀찮을 수도 있는데 제안했을 때 흔쾌히 받아들여주고 또 다른 것들도 제안해주는 우리 벵짱이가 고맙다.





[마니또]

안산에서 강호간사님과 면담 때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하고 또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지를 물었던 적이 있었다. 오롯이 나한테만 맞춘 질문이었는데 간사님의 대답은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채 내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양보하고 지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그 동안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마니또를 해 보는건 어때?’ 가 이렇게 10월 베트남에서 이뤄졌다. 안산에서의 한달, 이곳에서의 한달 동안 함께하며 나름의 ‘애는 이렇거야’ 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마니또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서로를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

[베트남에서의 관계]

베트남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베트남어 수업을 해주는 대학생 친구들, UTE한국어 수업 학생들, 그리고 뭐니뭐니해도 우리 Y식구들. 베트남을 보는 것만으로 문화와 삶을 알 수 있지만 베트남 사람들과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가지는 것만큼 나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베트남 친구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 베트남어 선생님인 린과 함께 대학교도 가보고 베트남 음식도 먹고 쇼핑을 하기도 했고, UTE 학생들과 같이 노래방에 가서 베트남 노래, 한국 노래도 불렀다. 또 베트남어 선생님 도동탄과 타오와 함께 스마일 레스토랑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 한국대학 면접이 있는 UTE 학생과 따로 시간 내어 면접을 도와주기도 했다. 나와 같은 세대가 이곳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들으면서 한국과, 또 나와 같은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도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군대를 가는지, 취직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이런 것들은 만나서 얘기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친구들과 더 많이 놀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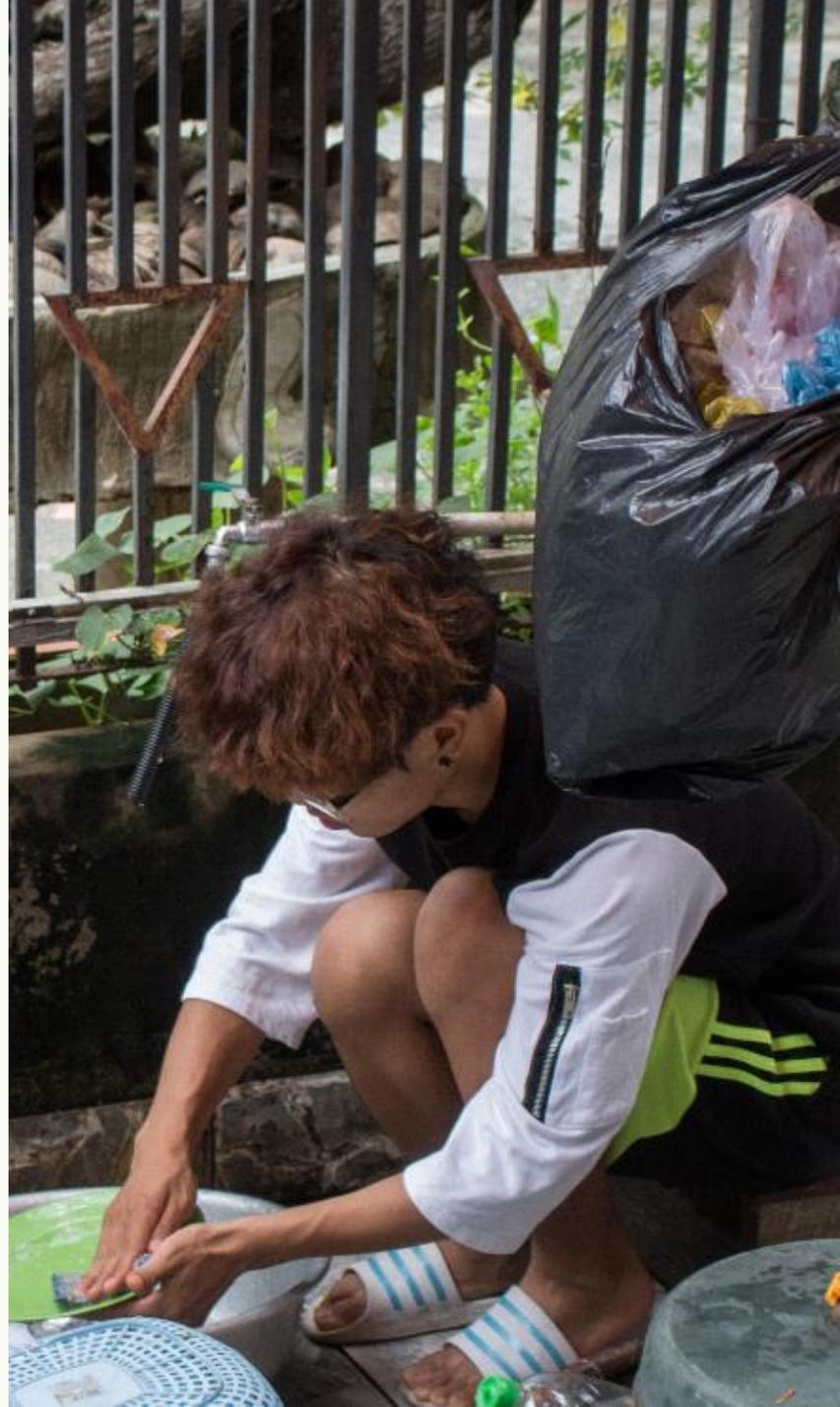
10억의 화이안

한번 돌아가 보자.

여기까지 한 문장 딱 써놓고 보니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서 아니다 사실 이 문장이 멋있다는걸 이미 생각해두고 딱 써놓은 다음 카 이제 무슨 말을 만들어볼까 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사방팔방으로 튀어 올라와서 이것저것 막 휘갈겨 적었다.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쓰는 속도가 너무 느렸기에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서 열심히 적었다. 그러다 보니 마치 미친듯이 수학문제를 풀고 나서 풀었다!! 했지만 엉근데 답을 어디 써놨지 하는 것처럼 글자들이 여기저기 헝클어져 있어서 어떤 말이 이 에세이의 첫 문단이 되어야 할까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집히는 대로 쓰기로 한다.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드라마, 언어, 영화, 노래, 사람)을 좋아하는 게 처음에는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이게 뉴스에서만 듣던 한류열풍인가? 길 거리를 그냥 가만히 지나가기만 해도 한국사람인 것을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먼저 말 걸어 주었다. (물론 대다수가 안녕하세요만 할 줄 알았지만.) 감사한 마음도 들었다. 적어도 우리나라를 적대시 하지는 않는구나. 조금은 우쭐하기도 했다.

왜? 나는 한국을 위해서 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그래도 왠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관심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때도 있었고 어떨때는 관
심을 주지 않으면 서운할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아아아 그렇다고 뭐 예전에는 그렇게 멍청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뭐 어떤 계기로 이렇게 생각
이 변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짹짹 이러
는 해님달님, 흥부와 놀부 같은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니까 오글거리려고 준비했던 손가락 제대로
펴고 마우스에 차분하게 올려 놓으세요.
(갑자기 여기서 왜 바로 이 얘기로 넘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조준호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둘을 이어주는 뭐 적당히 아름
답고 훈훈한 내용이 여기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다
음을 읽으면 될 것 같다.) 근데 이제는 그런 사람
들을 위해 내 지식을 나눠주고 싶다.(아마 매주
월요일마다하는 한국어 수업에서 영감을 얻은 듯
하다.)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신기해 하니까
그냥 옛다 들어나 봐라 이라고 알려주기보다는
어떠한 일종의 지나친 단어일 수도 있지만 계몽
같은 것을 해보고 싶다. 나는 한국에서 열심히 공
부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다.



중학생때는 수학여행에 가서도 우리반 애들이 다같이 커다란 방에 모여 놀때도 혼자 조그만 방안에 들어가 과학책을 펴고 공부를 했다. 딱히 부모님이 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가 행복했다. 약간의 재능(여기에는 노력과 끈기를 가질 수 있는 재능도 포함한다)과 많은 노력 덕분에 공부도 그럭저럭 잘하는 편에 속했다. 암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물론 열심히 공부하기는 했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확실하다. 사실 공부하는 학생은 말이 좋아 학생이지 그냥 빈둥빈둥 포카칩이나 먹는 백수와 다를 바 없는데, 당장 집이 가난한데 공부를 할 수 있겠나?(흠... 근데 그렇다고 베트남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 일단 적어도 UTE에 다니는 학생들은 가난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애는 뭘소리를 하는 것일까?) 고등학생때는 살짝 다른 의미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뭐든 접할게 많았다. 고등학생때 부터는 이제 뭔가 아 공부는 이렇게 해야하는구나 잡혀있었다. 근데도 추가로 공부 외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어하는 취미, 가고 싶은 곳, 알고 싶은 정보 등등 나에게 다 무료로 개방되어 있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다. 이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마치 ~와 같다. (여기에 어떤 적절한 비유를 들면 훨씬 더 멋진 문장이 될 것 같으나 잘 생각이 나지 않아서 그냥 그런 엄청 멋진 비유가 있다고 가정하고 계속 글을 읽어나가면 될 것 같다)

이쯤에서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 팩트하나를 던지자면 난 지금 공부가 정말 정말 싫다. 원래 휴학을 생각하고 있었고 할게없어 마침 라온아피에 오게 된 것이다. 공부를 안한지 이제 어느덧 1년이 되었다. 라온아피 자소서에도 다가도 자랑스럽고 써노았는데 1학년 2학기 학점이 1.17이다. 뭐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서 별 놀랄일이 아니라면 뭐 그럴수도 있겠다만 나한테는 진짜 놀라운 일이다. 학창시절에 수행평가 1,2 점 깎이는 것에도 분노하며 살아왔던 나인데 그냥 수업도 나가지 않았다. 왜냐? 공부하기가 엄청 싫었거든. 어머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전형적인 평범한 대학생의 얘기처럼 들리네 근데 뭐 암튼 대격변이었다. (생각해보면 그동안 공부해왔던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다) 아까 분명히 내 입으로 나 말고 주변 환경 덕분에 이렇게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근데 그냥 내가 공부하기 싫다고 안하는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사실 과외를 싫어한다.

과외가 대부분 평범한 초,중,고,대학생들을 위한 그저그런 평범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행위인데 그걸 돈을 받고 하다니 뭔가 이상하다. 그것은 마치 아랍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들이지 않고(혹은 엄청 적은 노력으로) 석유를 내다 파는 것과 같다. 그것은 원래 내것이 아니다. 지식을 나눠준다고 지식이 줄어드는건 아니니까 사실 창조경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뭔가 너무 별로다. 암튼 그래서 (나라도) 돈을 받지 않고 가르치면 어떨까 한다.

나는 항상 행복행복 거리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다. 공부하기 싫다고 불행하다고 징얼징얼했는데 근데 이제는 공부를 좀 해야겠다. 지금 공부를 안해서 행복한거보다 공부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것을 생각하면 뭔가 더 설렌다. 그 행복이 더 커다랄 것 같다.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겠으나 그럴것 같기에 일단 계획을 세워놓는다. 무료로(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한다) 지식들을 나눠주는 것을 하고 싶다. 한국에서야 그렇게 하도 많아서 별 감흥이 없겠지만 베트남은 한국보다 교육의 측면에서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일단 당장 책만봐도 대부분이 흑백 책에 별로 흥미롭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종종 그렇다고 답한다. 근데 왜 하필 베트남이냐? 그건 나도 모른다. 그건 아마 높은 확률로, Y가 나를 베트남에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내가 미얀마나 캄보디아에 보내졌으면 그 나라에서 한다고 했겠지. 어쩔때는 베트남사람이랑 말하다가 내가 여기 봉사하러 왔다고 하면 근데 너는 왜 하필 베트남으로 왔니?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나도 모른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말하고 싶으나 그냥 웃으면서 모른다고 하고 벗 나우 아이 러브 비엠티(니응 버이저 엠 이우 비엠티) 항상 이런식이다.



나는 베트남이 정말 싫었다. 왜냐면 내가 최초로 라온아띠 포스터를 보고 자소서를 쓸 때 생각한 곳은 강물에 샤워를 하고 물을 마시려면 집에서 5시간씩 걸어야 하고, 먹는 밥은 하루에 감자 2개, 주먹밥 1개, 망고 1개 뭐 이 정도로 생각했으니까 근데 베트남 Y가 있는 곳 근처는 우리 동네보다 잘산다 그리고 좀만 시내로 기어 들어가면 너무 잘산다 화성시보다 훨씬 잘산다. 이거는 뭐 많은 아띠들이 한번쯤은 생각해봤을 법한 생각이라 빨리 여기서 접어야겠다. 암튼 이 얘기에 대해 주로 혼자 생각하고 남들이랑 얘기도 해보았다. 그중 한 명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라 스스로 발전하고 또 어떤 일이든 하면서 그 주변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어떠한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라고 말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일단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므로 그리 오래 생각하는게 꼭 좋지만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고민할 시간에 분명히 더 값진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산업디자인학과를 전공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 뭐랄까 산업디자인학과는 노동자 양성학과 같은 느낌이다.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굴려지는 느낌! 그래서 다른 공대쪽 학과를 복수전공할 생각이야. 뭔가 제대로 배워서 다른 사람을 진짜로 가르쳐보고 싶다. 원래 한달이 넘는 계획은 어차피 세워봤자 망해서 잘 안세우는데 그래도 이거는 가지고 갈만한 계획인 것 같다.

베트남은 정당이 하나다. 살짝 나라에 잡혀산다고나 할까 그래서 한국인인 내가 교육 어찌고 저찌고 했을 때 잡혀갈 수도 있고 아예 거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음... 모르겠다 일단 해보고 싶다. 파주와 철원에서 그리고 안산에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들었지만 솔직히 그런건 잘 모르겠고 일단 나는 나중에 여기서 꼭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까지 써봤는데 3일 후에 바로 마음이 바뀌었다. 하지만 에세이를 내야 하니까 여기까지 쓴걸로 일단 내야겠다!

근데 그 다음날 한번더 생각이 바뀌었다. 굿굿



4부

서준이 그리는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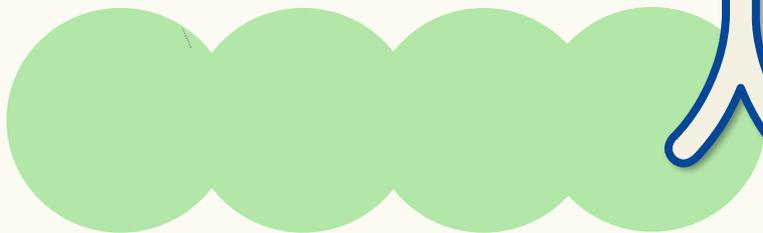
준호의 부족

일상

서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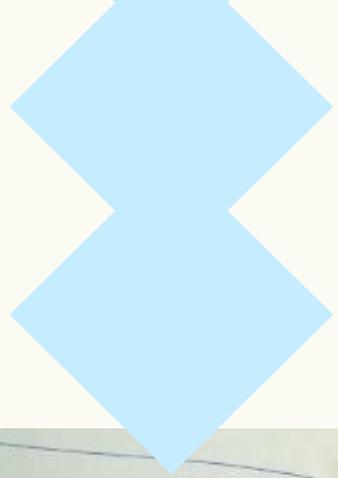
그리는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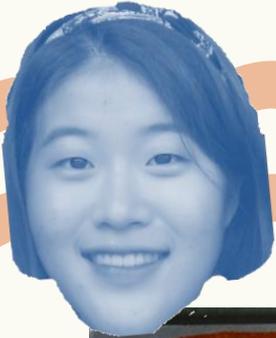
준호가 그린 서로





근우가 그린 서포





바다가 그린 서포

김근우

(걸스데이 이분)

← 비벳 생다이어리

모이신과 (그 나중의 방법이 있다)

← 열심히 위장해는 달을 뒤로 빼야 한다 (이유는 뭐가?)

노는 용 도시겠다...

김바다

(빛투이 분, 20세) 큰살아가는 중 새이득

← 더보 그 귀이카 카스타가 먹고 싶다

심심하고 귀찮다

심귀

유하은

(하원맘)

← 온세 배졌 어?

← 김 무어 라스어!!!

← 카스어

← 포스팅 할까?

← 하-하 유하은 특유어

← 하-하 소리가 있다

← 고가야

(조)준호

(a.k.a 요즘 심통맨)

← 2조준호라고 부르며 별종이야하다...

← 안

← 갓파쿠 음등

← 심통 점프 중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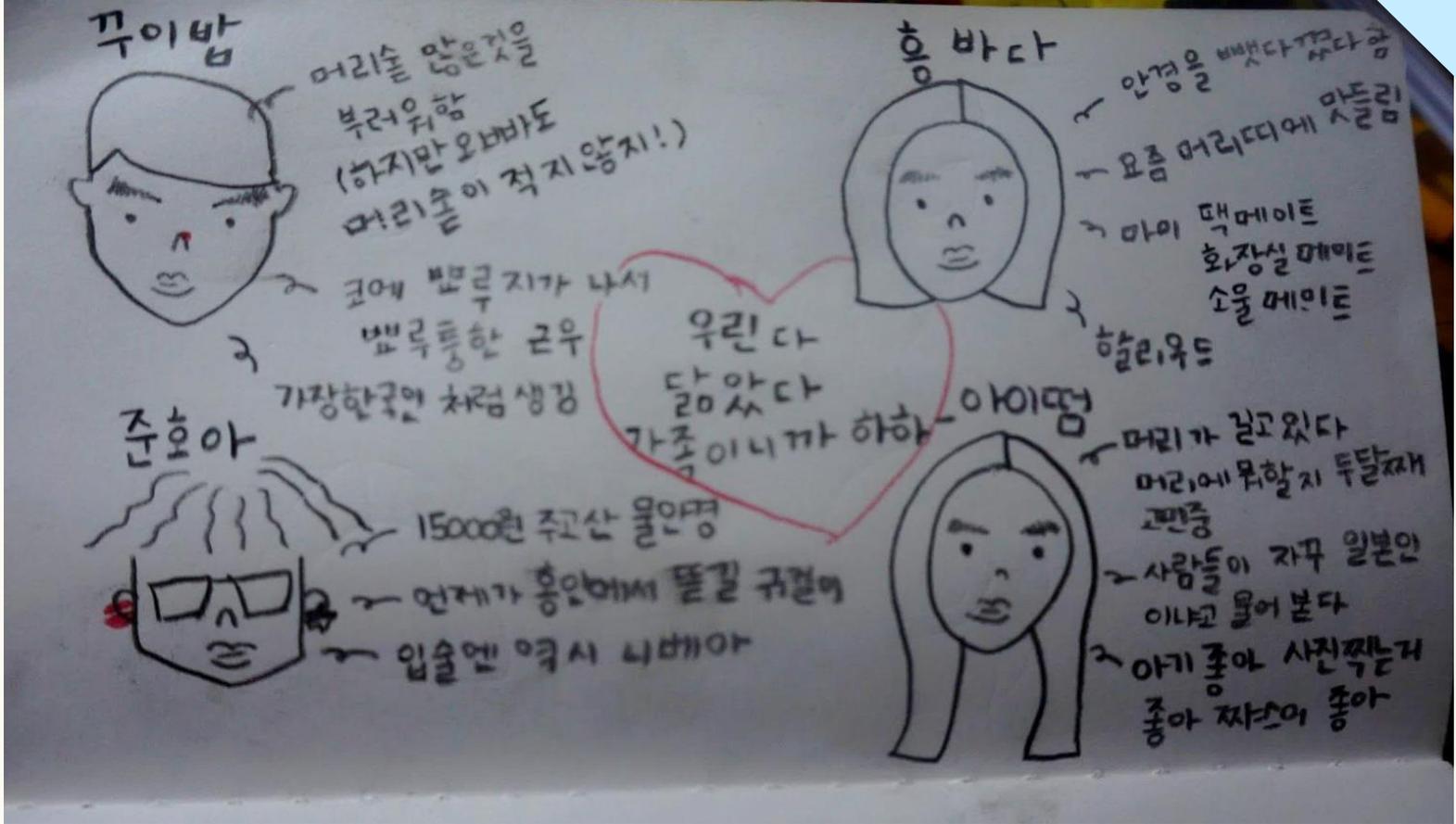
← 행복버튼

← 다시 한번 심귀봐 (그 리플레이를 원한다...)

← 아니~ 많이 꺾이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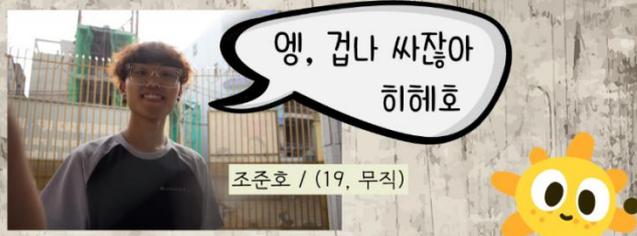
하은이가 그린 서포



이놈의 조준호! 또다시 무엇을 했는가



로또 1장은 10000D!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



조준호의
사진세계

세번째 소식

1. 부디엔 옆 성당



1군에 있는 부디엔!! 그옆에는 다이아몬드 플라자와 성당이 있다. 두가봐도 딱 랜드마크처럼 생겨서 수많은 잡상인들과 외국인들이 즐비하다. 나는 외국인과 잡상인이 싫다. 그래서 예쁘긴 하지만 별로다.

2. 유이네 집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유이는 학원(?)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다. 3층집인데 집으로도 쓰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중요한건 너무 이쁘다. 여기는 분홍색 방이다.
근데 진짜 신기한게 뭐라고 자세히 설명은 안되는데 베트남에 있는 건물들은 아무리 이쁘도 베트남 느낌이 난다. 좋다는 뜻!

3. 살아 있는 빈부격차



이건 팩트인데 베트남 H 근처에 있는 집들은 모두 우리 집보다 잘산다.
적어도 화성시보다 잘산다.

4. 오토바이 나라



오토바이가 많다는건 다 알텐데 생각보다 그렇게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 아파트에 오토바이가 잔뜩 주차되어 있다든지
롯데마트 주차장에도 오토바이만 한가득 있다든지

5. 이거는 취향저격



그러타.
이거는 취향저격이다.

그리고

다음달에
또만나요!



베짱이들의



소소한



일상





먹기 대잔치

- 1) 아픈 김근우 2) 인생의 행복 사랑 모든 것 바나나 케이크
- 3) 한과 피자헛에! 4) 인생 쌀국수집 처음 간 날
- 5) 50일 기념 과자 파티



먹기 대잔치 2

- 1) 카스타드 같은 과자 2) 카페만 오면 신이 나는 1인
- 3) 돌아온 반디유 아저씨 4) 친구들과 함께 한 저녁
- 5) 짜스어는 사랑이야





극냥 셀피...

- 1) 흥안 끝나고 셀피
- 2) 버스 틈구덩과 셀피
- 3) 30일 되는 날에 신나서 셀피
- 4) 완전체갈래 셀피
- 5) 김바다의 팩 하고 나서 셀피



아주 평범한 일상

- 1) 공짜 스티커 사진 2) 동혁오빠 본 날 3) 가짜 김근우 생일
- 4) 한과 김근우 불싸움 5) 짜스어 가게 명뽕이랑

아주 평범한 일상 2



- 1) 호아 언니가 알바 하는 카페
- 2) 왜 우산을 써도 비를 피하지 못해?
- 3) 귀요미 한





아주 평범한 일상 3

- 1) 분수 앞 유하은
- 2) 분자를 먹으러 갔다
- 3) 상쾌한 아침인 척